

광주 교통안전수준 후퇴...9단계 하락 14위

국토부 문화지수 발표...순천·나주·해남·영암·강진 최상위

방향지시등 사용·안전벨트 착용 향상...신호 준수율은 하락

광주의 교통문화지수가 지난해보다 9 단계 떨어진 14위로 주저앉았다. 순천시·나주시·해남군·영암군·강진군은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의 교통문화지수를 발표했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횡단보도정지선 준수율, 횡단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등 현장조사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등 통계 등을 4개 부분 11개 항목으로 나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다. 올해 전국 평균은 81.56점으로 지난해 81.38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광주는 80.09점을 받아 전국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위를 차지한 서울과는 4.71점 차였다. 광주의 지수는 지난해 85.39점에서 5.3점 떨어졌고 순위도 5위에서 9단계 하락한 14위로 밀려났다.

반면, 전남은 순위가 소폭 상승했다. 전남은 올해 82.56점을 획득,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수는 지난해 82.77점에서 0.21점이 떨어졌지만 순위는 2단계 상승한 8위였다. 군(전국 82개)과 인구 30만명 미만 시(전국 49개) 단위에서는 전남 지역이 대거 상위권을 차지했다. 군 단위 상위 5개 지자체에서는 해남군이 88.90점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고 영암군과 강진군이 2, 3위로 뒤를 이었다. 인구 30만명 미만 시에서는 순천시가 지난해 5위에서 3위로 2단계 상승했으며, 나주시가 4위를 차지했다. 1위는 89.92점을 받은 경북 문경시였다. 올해 교통문화지수 조사 항목별 지수(백분율)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향상

■ 2017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구분	지수(점)	순위	순위변동 ('16→'17)
서울	84.80	1	▲3
대구	84.53	2	▲1
제주	83.81	3	▲12
경기	83.81	4	▲3
대전	83.51	5	▼3
세종	83.14	6	▼5
인천	82.83	7	▲1
전남	82.56	8	▲2
부산	81.69	9	▼3
강원	81.12	10	▲3
충남	80.80	11	▲3
전북	80.68	12	▲4
경남	80.45	13	▼2
광주	80.09	14	▼9
충북	80.03	15	▼6
울산	78.06	16	▼4
경북	77.23	17	-

됐다. 이 중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지난해 65.47%에서 70.57%로 가장 높게 상승(5.10점)했고, '안전띠 착용률'은 82.36%에서 87.21%로 도 상당 부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횡단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보행자 100명 중 13명(13.15%)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1.1%포인트 하락했고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률'도 지난해 6.52%에서 4.63%로 떨어져 운전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이 일정 부분 개선됐다. 하지만 '신호 준수율'은 지난해 96.44%에서 올해 95.83%로, '이륜차 승차자 안전띠 착용률'은 84.02%에서 84.01%로 소폭 하락했다. '지자체 교통안전 노력도'도 5.93%에서 올해 5.36%로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의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2~3배 높은 점을 감안해 지자체 등과 공동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9
해질 17:27
달출몰 12:34
달짐 11:--

천바람 생생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유입돼 추워요.

◇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0/7	보성	맑음	-3/7
목포	맑음	2/7	순천	맑음	-1/8
여수	맑음	0/8	영광	맑음	0/6
나주	맑음	0/7	진도	맑음	2/7
완도	맑음	2/8	진주	맑음	-5/-
구례	맑음	-3/6	군산	맑음	1/4
강진	맑음	0/8	남원	맑음	-4/5
해남	맑음	-1/8	축산도	맑음	4/7
장성	맑음	-2/6			

◇ 바다 날씨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안	서~북서	1.0~2.5	북서~북	1.5~2.5
남해안	서~북서	1.5~3.0	북서~북	2.0~3.0
남부	서~북서	0.5~1.5	북서~북	0.5~1.5
남부	서~북서	1.0~2.5	북서~북	1.5~2.5
서부	북서~북	1.5~2.5	북서~북	1.0~2.5

◇ 생활지수

눈	높음
뇌졸중	높음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0:07
여수	12:15	19:29
	07:45	01:56
	20:57	14:20

◇ 주간 날씨

27(수)	28(목)	29(금)	30(토)	31(일)	1/1(월)	2(화)
☀	☀	☀	☁	☀	☀	☀
-4/3	-4/6	-2/8	-2/8	0/6	-1/6	-2/5



은 누리에 축복을 2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임동성당에서 천주교 성직자와 신도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기념 미사를 올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교사노동조합’ 공식 출범

지역 유일 법적 지위 교원노조...초대 위원장 박삼원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중앙집권화 반대 움직임에 반발해 설립된 '광주교사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이 공식 출범했다. 이 단체의 노조 설립신고가 노동청에서 받아들여지면 교원노조 법적 지위를 얻는 지역 유일의 교원노조가 된다. 교사노조는 교육전문 노조로, 시교육청과 단순 노사관계로 관계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는 입장이다. 교사노조는 특히 전교조와 상호보완·진보경쟁·역할분담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

동구, 전국 첫 발관리 자활기업 창업

다음달부터 동명동서 영업 시작...본격 시민 서비스

'발건강케어서비스사업단'(발건강사업단)이 내년 1월 동명동에서 문을 연다. 발건강사업단은 전국 최초로 꾸려지는 발 관리 전문 자활기업으로,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26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발건강사업단이 그동안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활동했으나, 내년부터는 시민들을 상대로 본격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건강사업단은 지난 2013년 사회서비스형으로 시작해 2015년 시장진입형으로 전환하며 5년간 5억여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노인들이 주 고객층으로, 당뇨를 비롯한 각종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인기를 끌었다. 동구는 사업확장을 위해 인건비와 사업

비를 사업단에 지원하고 사업단은 매출액의 60%인 약 3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적립해 이번엔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서 자활기업 창업의 결실을 맺게 됐다. 발건강사업단은 지난 21일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단 간담회를 열고 창업 경과보고, 참여자 의견수렴, 동명동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 이달까지 자활기업 인증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동구는 자활기업이 일정 기간 안에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포항서 71번째 여진

2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지난 달 15일 강진의 여진이 두차례 연속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 19분 22초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11도, 동경 129.36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다. 기상청은 이 지진을 지난달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강진의 71번째 여진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

중고생 절반은 창업 꿈나무

희망직업 1위는 교사

중·고등학생 절반 가량은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직접 창업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사였으며, 고등학생 선호 직업에는 기계공학자, 프로그래머 등 이공계열 분야가 강세를 보였다. 이는 25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올해 6~7월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 초·중·고 1200곳 학생·학부모·교사 등 5만1494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세부 질문 항목에서 '대중매체에서 창업 성공 사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자 중학생의 47.3%, 고등학생 48.0%가 '실제로 창업을 해보고 싶거나 관심이 생긴다'고 각각 답했다. 올해 조사에서도 희망직업 1위는 2007년부터 줄곧 최상위권을 유지해온 교사가 차지했다. /이종행기자 golee@

광주!

친환경자동차 타고 미래로 간다

2021년까지 3,030억원 투입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 자동차산업 전용단지 조성
- 선도기술지원센터 및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 친환경차 관련 핵심부품 기술개발,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 노사관계·적정임금·노동시간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광주광역시
GWANGJU CITY